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김재열



세종시 문제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국무총리도,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도 온통 세종시에 울인하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를 살리기 위해 앞뒤 안 가리고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종시는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고, 내륙에 위치해 기업 입지로서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없다.

세종시 논란의 근거는 비효율성이다. 그러나 기업이야말로 효율성을 가장 중시하는 조직이다. 효율성이 곧 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기업들의 입지를 유도하려면 좋은 미끼가 빠질 수 없다.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특혜를 세종시에 쏟아 붓고 있다.

각종 특혜 쏟아붓는 정부

국내의 우수 기업에 이어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을 늘려주면서 제2 캠퍼스 조성을 유도하고 있어 지방대학이 유탄을 맞

게 됐다. 일의 순서나 모양은 애초부터 따질 계제가 아니라라는 듯 물불 가리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가 세종시 기업 유치에 몰인하면서 지방의 미래 성장동력들이 초토화되고 있

國格을 높이려면

다. 한국전력의 '세종시 차출설'이 광주·전남 지역민들을 경악케 하더니 공들여 유치한 의료복합단지도 겹겹이 남을 우려가 높아지면서 현 정부 뒷받침 대구·경북 여론마저 요동치고 있다. 정 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설 정도다.

다른 지역의 발전계획은 망가지든 말든 세종시만 살리겠다는 정부 의지가 노골화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랫돌 빼 위돌 쌓는 식으로 기업들의 숫자만 채우겠다는 발상으로는 세종시 수정

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세종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 역시 매끄럽지 못하다. 국책연구기관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연구를 독려하는가 하면 "이러한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90~95% 마음을 굳혔다"는 식의 바람잡는 언행들뿐이다.

세종시 수정 논란은 대한민국 현수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흥적인 대안이란 관을 치면서 정치적·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종시에 가로막혀 움푹달라지고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G20 정상회의

가 될 수 있다. 정치와 경제 등에서 국격을 업그레이드하면 선진국이 못 되라는 법이 없다.

신뢰가 국격 상승 출발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 등 하드파워 못지 않게 문화와 의식 등 소프트파워가 강해져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정부의 국정운영 행태는 국격 제고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국제인권단체가 응징을 해줄 때나 민의의 정당한 국회가 독주와 대립으로 얼룩지는 한 선진국 도약은 기대하기 힘들다.

공자는 군대와 양식, 신뢰 가운데 나라를 운영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항목으로 신뢰를 꼽았다. 국격을 높이는 출발점은 국가 지도자들의 도덕성과 신뢰다.

용산 참사로 한국 법치주의에 흠집이 생겼고, 세종시 문제로 국정의 연속성에 관한 정부 신뢰가 저하됐다.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한민국 지도층의 도덕적 저수는 어느 정도일까.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과 위증 논란을 빚었던 '양과 총리'로 국격 상승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논설위원> ajkim@

시설

정치권 무관심에 표류하는 지역현안사업

지역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일부 대형 국제행사의 경우 시일이 촉박한데도 관련 법규나 예산 확보가 미뤄지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2015년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권이 극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합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FSU(국제대학교스포츠포럼) 규정상을 연말까지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 등으로 여야 대화가 실종되면서 광주 하계 U대회 지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남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야 합의로 지원법까지 통과된 F1 대회(포틀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경기장 건설비의 국고 예산 반영을 외면하고 있다.

무안기업도시 내 한·중 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도 국내 투자회사들의 사업 포기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이 늦어지면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여기에 전남도의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 역시 핵심지역인 해남 송송지구에 대규모 유리온실이 건립되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

지역이 텃밭인 민주당 역시 현안사업 표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U대회 지원법과 F1 경기장 건설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미래 성장동력인 현안사업 표류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의 발전 전망 역시 암담하다.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촉구한다.

과적단속 '복마전' 몰랐나 모른체 했나

과적단속 정보를 알려주거나 위반사실을 묵인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국도관리사무소 소속 도로관리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이들에게 돈을 준 화물차주 등 147명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도로관리원들은 2006년 10월 22일경부터 지난 8월까지 화물차주들에게 이동식 과적단속반 위치를 알려주거나 위반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대당 20만~50만원 받는 등 모두 900여 차례에 걸쳐 3억4천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불고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팔기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도로관리원들은 광주 6명을 비롯해 진주, 전주, 남원, 보은, 순천과 예산지역 국도유지사무소 소속으로 단속비리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로관리원들의 부정행위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굳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과적단속 비리는 제도상의 문제점과 관리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어우러진 결과 할 수 있다. 현행 도로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한차량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차주들은 벌금을 물고서라도 운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법이 현실성이 없다 하더라도 과적단속의 비리가 관행처럼 굳어져 온 것은 큰 문제다. 이번 수사도 '상납하느라 지친' 화물차주의 제보로 시작된 것을 보면 비리가 장기간 만연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상당 등 뒷길의 관여나 방조는 없었는지 낱말이 밝혀야 한다. 이번 비리의 행태를 보면 관리사무소의 묵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과소된 도로관리에 얼마나 많은 국민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가. 과적단속 비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도로환경과 운행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2004년 출시된 영화 '아이(I), 로봇'이나 최근 케이블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전격 Z작전'은 컴퓨터의 무궁한 진화를 그린 판타지다. '아이, 로봇'은 2035년을 무대로 한다. 재미처럼 생긴 로봇들은 인간을 위해 요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등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신뢰받는 동반자로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로봇 참사자인 래닝 박사가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게 되고, 로봇들은 중앙 컴퓨터에 의해 미래 인간들을 압박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변한다.

로봇 심리학자인 켈빈 박사와 스프너 형사의 활약에 힘입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만, 인간에 가까운 지능을 갖춘 컴퓨터의 위력을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리메이크 시리즈인 '전격 Z작전' 역시 인공지능이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를 소탕하는 장면을 그린다. 인간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천문학적 계산에서부터 감점까지도 통제하는 컴퓨터 결과

물어 결코 공허한 상상만은 아닌 섬뜩한 느낌이 들게 한다. 최근 컴퓨터의 진화를 보면 이 같은 오락물을 단순한 판타지로 치부하기는 곤란하다. 미국의 IBM연구소와 스탠포드 대학이 블루진 슈퍼컴퓨터 아키텍처를 이용한 '푸른 물질(Blue Matter)'이라는 알고리즘을 공동개발한 결과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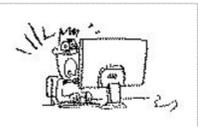
이들 연구진은 인간의 뇌를 시뮬레이션해 컴퓨터로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고양이 두뇌 외곽회통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한다. 인간두뇌의 힘과 효율성을 흉내 낼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오기까지 10년도

만, 인간에 가까운 지능을 갖춘 컴퓨터의 위력을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리메이크 시리즈인 '전격 Z작전' 역시 인공지능이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를 소탕하는 장면을 그린다. 인간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천문학적 계산에서부터 감점까지도 통제하는 컴퓨터 결과

채 남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오락물에서나 볼 수 있는 판타지가 모두 현실화될 리야 없었지만, 진화한 컴퓨터가 인간의 일상을 지배하고 압박하러가는 판타지는 상상하기조차

않다. </이종대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컴퓨터



기고

문인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던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세에 있다고 하나 민간고용 부진으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고 가계소득도 줄어 서민 가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신용플루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 모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나눔 분위기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나눔과 실천의 훈훈한 사회를

나눔 문화를 이야기할 때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고대 로마제국에서 유래된 가진 자의 사회적 책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로마 귀족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이행한 귀족의 자존심이었다.

특히, 영국 귀족은 이를 가장 성실히 실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다이애나의 둘째 아들이며 왕위 계승서열 3위인 해리 왕자가 아프가니스탄 교전지역에서 병영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지난 2007년 국내 기부금 규모는 GDP 대비 약 0.9%로 미국 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개인 기부는 1999년 29.3%에서 2007년 61.3%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 전체 국민의 기부참여율은 32%로 여전히 기부문화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기업 기부금 또한, 2003년 1.9조 원에서 2007년에는 3조3천억 원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기업의 기부금액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체계적인 기부문화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나눔의 또 다른 방식인 자원봉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율 20% (2008년)는 영국의 59%와 비교했을 때 초라하기 그지없다. 또한, 활동봉사자 비율이 등록봉사자의 36.2%라는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봉사의 나눔 문화가 성숙되지 않았음을 나타내 준다. 광주시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하여 연탄을 무상공급 하는 등 다양한 사색을 펴나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불고을 노인복지타운 개원을 통해 기부와

봉사를 확대하는 나눔 문화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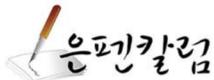
그러나 급속히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공공부문이 미치지 못하면 시민들이 나서 소외된 이웃을 감싸 안아 주어야 한다. 특히, 어려운 이웃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미는 일에 우리 공직자들부터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가정에서 밥을 지을 때마다 쌀 한 줍씩을 모아 두었다가 이를 이웃에 기부하는 '좁두리 문화'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해 왔다. 나눔 문화가 생활 속에서 바쁜 일상사로 인해 잠시 희미해진 것뿐, 가슴 훈훈한 나눔 실천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나눔이란, 자신의 것이 남아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내어 주는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이때, 나눔과 실천을 통해 작은 것도 서로 공유하는 훈훈한 사회를 기대해 본다.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박홍근



'도시'란 인간이 스스로 창조해 낸 가장 큰 작품이며 가장 복잡한 발명품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거대한 조직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확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도시 저 도시를 뚜렷하게 구별 지어주던 특징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똑같은 상업점, 똑같은 식당들, 똑같은 영화관들, 어디나 똑같이 가로를 가득 채운 자동차 물결의 도시들이 가득 채운 자동차 물결의 도시들이 현대인들의 삶은 대부분 '도시 속 삶'

문화의 도시를 걷고 싶다

이다. 도시라는 하드웨어는 '인간의 삶'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지배한다.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뭔가가 일어나고, 언제 어디서나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사람들은 만족한다. 그러나 살맛나는 도시들은 도시발전의 속도가 자연적 시간의 흐름을 거역하지 않으면서도 걷고 싶은 곳들이 많은 도시들이다.

진정한 인간의 삶은 느린 걸음 속에서 맛볼 수 있다. 걷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행복감 감정을 느낀다. 걷기는 모든 감각기관을 활짝 열어주는 최고의 명상으로 빠져들게 한다.

또한, 도시는 그 안에 사는 시민들이나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비로소 존재 가치가 더해진다. 그들은 도시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사람과 사물이 만나고, 상업, 명소, 공연장, 여가를 즐기는 장소 등등과 친해짐으로써 그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 도시를 오랫동안 추억하게 된다.

발전의 시계가 느리게 가는 광주는 변화가 더디다.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공간만들 기회를 남아 있다. 우리가 늘 가까이 있다 보니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여 소중한 가치들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고건축과 근대문화유산이 함께하며 전통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어울림으로 다가오는 '올림픽 거리', 제주도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다는 '무등산 옛길', 폐선부지를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푸른길 공원' 등등. 이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문화자산의 길들이다.

물결의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기술을 넘어 감성을 움직이는 문화 콘텐츠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 도시들은 그들의 고유한 환경이나 역사, 문화 등으로 자신의 이미지와 색깔을 만들고 있다. 광주는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성과, 수없이 다양한 색깔의 웃으로 갈아입으면서 반증해 온 역동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감성의 시대를 이끌어갈 문화도시가 되기에 충분한 저력과 자원이 있다.

도시의 구체적인 삶을 이루는 거리가, 건물, 맛과 멋, 소리, 이야기가 우리의 몸속으로 깊숙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내고, 만들고, 보존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도시를 걸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한다. <건축사>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택시승객도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한다

우리 택시기사들은 엉뚱한 고충을 참 많이 겪는다. 하루종일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 물론 대다수의 승객들은 좋은 분들이다.

택시업 역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승객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웃는 낯으로 대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상황이 도저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 어떤 주머니 라디오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승객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에서 택시운전사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욕을 해대기도 한다.

또는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치안

센터로 찾게 되는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대거나 경찰관의 목살을 잡고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럴 때 경찰은 그 시민을 때릴 수도 없으니 참 난처해 하며 참으라고만 말한다. 치안센터에서조차 공권력이 무시되면 우리의 공권력은 어디에서도 존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별 볼일 없는 택시기사라 해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한다. 또한, 치안센터에서 벌어지는 공권력 무시 행위는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시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 아닐까. <유지호·목포시 축북동>

CCTV 사각 많은 쇼핑센터 주차장 차량파손 주의

지난주에 시내 쇼핑점에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쇼핑을 하러 갔다. 그런데 쇼핑을 다 마치고 나와서 보니 차의 앞쪽 범퍼 모서리 부분이 뜯겨져 있었고 운전석 쪽 문 쪽이 반해서 폭 들어간 것이었다.

혹시나 연락처 메모라도 남기지 않았을까 하고 확인해 봤으나 어떤 메모지나 연락처를 적어 놓은 것이 보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사람만 다치지 않은 행운이 사고였다.

나는 서둘러 CCTV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 관리실로 달려가 사정 얘기를 하고 확인해 보았지만 하필 내 차가 있는 쪽은 CCTV

사각지대여서 찍히지도 않았다. 쇼핑점 측에서도 그런 경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임장을 바꿔놓고 보자. 내 차를 누군가가 찌그러트리고 달아났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는가. 또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CCTV에 사각이 없고 전 주차장을 완전히 찍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차가 격정이 돼서 쇼핑을 하다가도 잠깐씩 나와서 차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누가 그곳에서 쇼핑을 제대로 하겠는가 말이다. <김기봉·광주시 서구 광천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濤誌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